전남 동부권

"섬진강변 따라 생태여행 떠나요"

곡성군 도보 관광 '녹색문화 여행길' 조성

곡성군이 섬진강을 따라가는 녹색문화 여행길을 조성한다.

곡성군은 "웰빙과 미를 추구하는 도보관광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올해부터 '섬진강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군은 우선 1단계로 곡성읍 전통 5일 시장을 출발점으로 기차마을 → 곡성천 →섬진강 침실습지 →침곡나루터 →두가 외갓집 체험마을 →청소년 야영장까지 강을 따라가는 총 연장 14㎞의 생태탐방로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올해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2년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보성강변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생태탐방로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곡성의 청정고을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매월(폭염이 예상되는 7월 제외) 첫째주 토요일을 '산악자전거 투어일'로 지정했다.

특히 코레일이 출시한 '에코레일(Eco-Rail) 열차'를 유치해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섬진강변과 보성강변의 비포장도로와 임도를 달렸다.

군이 개발한 자전거 투어 코스는 곡성 기차마을을 출발해 섬진강과 보성강변의 비포장도로를 경유해 태안사를 되돌아 오는 총 68Km의 일반인용 하이킹 코스와 섬진강변 비포장도로~오곡 봉조리~미산리 임도를 달리는 총 34Km의 산악자전거 전문가용 코스 등 2개가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의 청정한 생태환경을 접하고 강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학습의 길, 건강을 돕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立春大吉 하세요"

광양시는 지난 31일 시청 민원실에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입춘첩(立春帖) 써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이며 광양서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곡 박종태 선생이 참여했다. 〈광양시 제공〉

순천농협 4년 연속 '클린 뱅크'

순천농협(조합장 이광하)이 지난 2007년부터 4년 연속 '클린(Clean) 뱅크'로 선정됐다.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클린뱅크'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의 척도로 부실채권이 거의 없어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순천농협은 4연 연속 '클린뱅크'로 선정됨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우수함으로 인정돼 조합원과 고객이 믿고 찾는 지역의 최대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광하 조합장은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4년 연속 '클린 뱅크' 인증서를 받은 것은 순천농협의 새로운 역사"라며 "앞으로 조합원과 고객을 섬기는 지역의 종합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171개 지역농협 중 대출규모가 7000억원 이상인 농협은 순천농협을 포함해 22개이다.

22개의 농협중 2010년말 기준 4년 연속 '클린 뱅크'를 달성한 농협은 전국에 4개 농협에 불과하다. 이 중 3곳은 서울소재 농협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 전국에서 순천농협이 유일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양 농기계 임대 확대 오늘부터 동부지역 운영

광양시가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동부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는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봉강면 지곡리 시험포장내에 농업기계 48종 237대를 확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 동부지역(옥곡, 진상, 진월, 다압, 광영, 태인)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이용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진상면에 위치한 광양원예농협 선별장 부지 내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한다.

우동근 소장은 "이번 임대사업장을 확대·운영함에 따라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농작업 기계화와 동부지역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국비예산 10억을 확보, 임대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문의(061-797-3676)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정원박람회 해외서도 소통"

자원봉사자들 인터넷 카페 '에코 메이트' 개설

201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외국인 서포터즈와 시민 외국어 자원 봉사자들이 해외홍보 인터넷 카페 '에코 메이트'(cafe.naver.com/ecomate)를 개설했다.

외국인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원박람회 관련 정보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 소속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웹사이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 정원박람회추진단은 해외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 현재 페이스 북, 플리커, 위키피디아(6개 언어) 등에 정원박람회 소식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또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유명 수목원과 식물원, 국제기구, 박람회 개최도시 등으로 정원박람회 홍보 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양 곶감' 설 선물 인기 폭발

선물용 주문 폭주

광양시의 곶감 브랜드인 '백운산 곶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곶감은 지난달 11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돼 품질의 우수성이 증명되면서 상표권을 획득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했다.

광양시는 지역별로 분산된 생산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광양곶감 연합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해 떫은감의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및 생산기반을 조성해 곶감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광양곶감은 백운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햇볕에서 자란 감을 정성스레 만든다. 대봉으로 만들어 감알이 굵은 데다 빛깔이 곱고 당도가 높은데다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확 후 단계별로 수 차례 세척을 하기 때문에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지사	(061)746-8111
여수지사	(061)653-8444
광양지사	(061)792-8111
고흥지사	(061)842-2121
보성지사	(061)853-1190
구례지사	(061)783-8111

전 북

김제 '음식 쓰레기 용기종량제' 실시 후 27% 감량

김제시가 지난달부터 '음식물용기종량제'를 실시, 큰 성과를 거뒀다.

김제시는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27%가 줄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한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89t이었으나, 올 1월에는 285t으로 104t을 줄여 27%를 감량한 것.

시는 음식물용기 종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홍보와 함께 동지역과 단독주택, 음식점에 5~120ℓ 용기 2만7000여개를 보급했다.

시는 신풍동·검산동 지역은 월·수·금요일에, 요촌동·교동·월촌동은 화·목·토요일에 격일로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수거방식 역시 기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전북 초·중생 9600명 줄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전북 도내 초·중학생 96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123학급 7689명, 중학교는 44학급 1981명 등 총 167학급 9670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학급당 33명에서 32명으로 1명 줄였다.

하지만 올해 초등 2개교(군산 푸른솔초, 군산 미장초)와 중학교 2개교(전주 우림중, 전주 오송중)가 새로 문을 열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한 과밀학급은 지난해보다 28개교, 842학급이 줄어든 10개교, 342학급만 운영되게 됐다. 또 학생 수 부족으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67개교, 116학급에서 56개교, 103학급으로 개선됐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새만금 송전선로 강행 못참아"

한전 인가 신청따라 주민들 소송·집회 등 반대운동 본격화

한국전력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30.6㎞, 345kv급) 건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인가 취소 소송과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는 등 반대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 옥구읍, 미성동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송전철탑 반대 공동대책위(위원장 문기수)에 따르면 군산시는 최근 한전이 신청한 실시계획 인가를 이르면 2월 중순께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대 공동대책위는 철탑 방식의 송전선로 설치가 전자파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설 이후 각종 소송에 착수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우선 서울 종합법무법인 선임 변호사와 협의해 지식경제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인가 취소와 실시계획인가 취소,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은 농기계 100여대를 동원해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에 있는 공사 현장사무실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군산시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위해 송전선로를 조기 착공하려는 행정 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에 철탑 92개 등으로 구성된 송전선로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 철탑 전자파의 인체 유해와 자연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각종 소송은 물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특별 승진제 운영·실적가점제 확대

정읍시가 민선 5기 인사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약진하는 정읍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인사운영 방침 ▲인사제도(13개) 운영계획 ▲인사시책(8개)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민선 5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특별승진제 운영과 5급 다면평가제 운영, 국가예산확보 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는 실적가점을 적용하는 실적가점제 확대운영 등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記者노트

군수님은 허수아비

지난해 부안 격포항 요트계류장 관급자재 유착 의혹사건에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사건이 터져 군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말단에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군청 직원 16명이 허위 출장 신청서와 여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되는 사건이 터졌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달 3일 신청사 개청식을 마치고 직원조회를 통해 "군민을 무시하고 건방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 여러분이 특권의식을 버려야한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했다.

이같은 집안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공직 사회에서 잇따라 터지는 비리행위를 전해들은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주민 최모(58)씨는 "지역에는 버스비 몇백 원을 아끼려고 걸어다니는 노인과 저소득 학생들이 아직도 즐비한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의 비리는 기가 막힐 일이다" 고 개탄했다.

공직사회의 폐쇄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강 철 수

〈전북 취재본부〉

한 공무원은 "터질 것이 터진 것뿐"이라며 "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수 측근과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해결할 것처럼 축소해 보고하는 등 군수를 둘러싼 '인의 장막'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공직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한 시점이다.

/knews@kwangju.co.kr

단 신

남원시-中 염성시 국제교류 협약

남원시 김형만 부시장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염성시를 방문하고 3개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합의를 했다.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한 남원시와 염성시는 그동안 양측이 30여 회에 이르는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도시간의 선린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양시는 ▲2개월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양 도시간 국제교류 연례실무회의 운영 ▲각 도시의 축제와 문화행사에 대표단 파견 등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시 설연휴 '비상급수 상황실' 운영

김제시는 설 연휴기간(2~6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급수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연휴기간중 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압변동에 따른 출수불량과 누수, 계량기 동파 등에 대비해 상수도대행업체와 합동으로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유사시 운반급수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063-540-3832)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부안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부안군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난달 제정·공포했다.

군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정책실현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통해 살고 싶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지난달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 이상부터 적용되며, 보험료 지원액은 월 2만원씩 최대 5년간이다. 문의(063-580-4594)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임실군 '개별공시지가 민원 콜센터' 운영

임실군은 1일부터 민원봉사과 지가상황실에 '개별공시지가 민원 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콜센터는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조사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내에 민원을 제출하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군청 지가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C콜센터(063-640-2268)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